

개척교회 설명회 자료집

1. 분립개척에 대해 당회에서 1년 이상 연구하고 토의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개척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은혜롭게 느끼신 점이나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비전은 지금부터 7여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비전을 잊지 않기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매년 1천만원 적립하는 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7년 말 정책당회에서 한진환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장로님들은 1년간을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척교회 설립 경험이 있는 정주채목사(향상교회), 김동호목사(높은뜻송의교회), 이재훈목사(온누리교회), 그리고 실제 3개 개척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들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0여차례의 세미나를 한 후, 당회는 한국에 5만여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교회가 절실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회는 “서문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기로 한다”고 결정했고(2019.6.23),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 왔던 전통을 따라 ‘청년, 다음세대’에 집중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첫 주일 한진환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비전과 함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 임대웅목사님과 준비위원회(32명)가 섬겨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수도 없이 질문하면서도 코로나는 세상을 멈추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연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이후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척교회 관련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준비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고 개척교회 진행과정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2월 셋째 주일 이후 모든 성도가 모일 수 있었던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그동안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7월 4일과 26일, 개척교회를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가지면서 성도님들께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개척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온라인토크쇼라는 새로운 형식의 소통방식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온라인토크쇼의 평균 1천회의 조회수를 통해 개척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주보에 빠지지 않고 개척교회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전했으며, 기도헌신자를 모집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교회 이름을 선정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추가 온라인 토크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자리 역시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소통으로 인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개척교회의 남은 일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 현재 진행되는 개척교회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개척교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개척교회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국면은 담당목사 선정, 장소 선정, 그리고 참여 성도모집입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설명회를 거쳐 7월 5일 임대웅 목사님을 개척교회 담당목사로 선정했습니다. 7월 26일에는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보에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개척교회 동참여부와 상관없이 자원하는 헌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척교회의 모습이 전체 성도의 절반 정도를 청년으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 역시 청년위원의 수를 많이 두었습니다(전체 32명 중 장년 20년, 청년 12명). 준비위원의 수고와 성도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11월 15일 공동의회를 통해 미사 오벨리스크가 개척교회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일정은 참여 성도 모집입니

다. 12월 6일부터 개척교회를 소개하는 리플릿과 더불어 개척교회 동참자원서를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모집하여 개척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12월 6일 이후에는 개척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준비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와 관련된 일정도 공유합니다. 개척교회가 들어가게 될 오벨리스크 건물은 11월 중순 준공검사를 끝낸 신축 건물입니다. 개척교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12월 초순 인테리어업체 선정 후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순 경부터 개척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4. 왜 미사지역을 정했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척교회가 너무 멀면 서문교회에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5-10km 정도가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장소선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송파, 서초, 위례, 분당, 감일, 강동 등지의 수많은 곳을 찾아다닌 후 교회 개척의 비전에 가장 부합하며 거리, 가격, 주차 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미사 오벨리스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의 비전은 청년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미사 1,2동은 2040세대의 연령대가 아주 높습니다 (52.8%).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낮다는 세종시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개척교회가 들어설 오벨리스크 건물에도 893호의 오피스텔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약 1만 8천 여호의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의 절반 정도가 청년들이라고 하니 수천 명의 청년들이 교회 주변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청년 선교의 비전에 딱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5. 개척교회 비용이 4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요? 현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현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려운 시대에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인 장소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의 변화와 교회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점, 최소 150명이 한 번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할 때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향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의 헌금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금은 가능하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나면 서문교회 살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는 교회의 사역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는 우리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개척교회에 들어가는 헌금 자체가 우리 교회의 살림입니다. 물론 다른 사역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역을 멈출 수는 없지만, 개척교회가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개척교회에 동참할지를 고민 중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이성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개척교회의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참여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비전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입니다. 주변에서 개척교회에 함께 가자고 청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서로 통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에 가느냐 서문교회에 남느냐를 두고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하실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서문교회에든 개척교회에서든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신비한 신호를 기다리지 마시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개척교회에 동참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7. 전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금 그런 일을 하는 게 부담 되어서 선뜻 동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서문교회보다 힘들지 않을까요?

개척교회 사역의 목표 중 하나는 전체 성도의 80% 이상을 리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섬길 리더가 많으면 일정기간 리더로 섬기다가 일정 기간 쉬고, 재충전한 후 다시 리더로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한다면 사역 때문에 지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8. 개척교회가 다음세대, 청년을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년 성도들이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또한 장년 성도들이 가더라도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다면 너무 부담이 큼니다. 이 일을 잘 할 사람만 가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청년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단체나 청년단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다음세대 특히 청년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개척교회의 주된 비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서문교회가 선교와 이웃사랑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육, 구제, 교제, 문화 등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연령, 성별, 지위, 성격, 취미, 교향, 학력 등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개척교회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다양성을 가질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청년을 위한 사역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주요 사역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5대 사역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듯이, 청년만 많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의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 성도의 절반 정도가 청년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물리적 청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의미의 청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역동적인 청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계획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 개척교회의 주일학교 및 교역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또, 젊은부부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 문제로 개척교회 동참을 고민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가느냐에 따라 주일학교 규모도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서편성과 교역자 선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규모를 보고 주일학교와 담당교역자를 정하는 대신, 주일학교를 담당하며 임대웅 목사님을 도울 파트타임 교역자 두 명(남자 1명, 여자 1명)을 먼저 모시려고 합니다. 자녀와 함께 개척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서문교회처럼 2-3세 단위로 세밀하게 주일학교 부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세 개 부서로 주일학교를 나누어 교역자들이 헌신된 교사들과 함께 최고의 주일학교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젊은부부를 위해서는 가족예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소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주일에는 한 가족 단위로 예배할 수 있는 가족예배실이 됩니다. 기존 자모실 개념에서는 주로 엄마가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아빠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족예배실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유아와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어, 서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도 사라집니다.

물론 장년을 위한 양육훈련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새가족교육→세례(입교)교육→예비리더교육→리더교육의 체계적인 성장훈련이 제공됩니다. 결혼예비학교, 비혼자를 위한 성경공부, 자녀교육을 위한 세바맘(세상을 바꾸는 맘) 모임, 가정예배를 위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하여 가족을 세워나가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소명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세상 속에서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양육할 것입니다.

10. 개척교회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공유할 계획인지요? 공간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다 보면 주일에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거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비전도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구비한 뒤 그 장소를 공유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유오피스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사 오벨리스크로 장소가 확정된 뒤에는, 그 지역과 장소의 특징상 누구나 와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에게 그 곳은 사무실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준비의 공간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하게 수다를 떠는 공간이면서, 자녀와 함께 쇼핑 나온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과의 상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강연과 소공연도 진행되어 부담없이 이웃을 초청하여 출입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간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공간입니다. 주중 편안한 휴식과 사무의 공간에서 주일 거룩한 예배와 양육,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성도들이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작은 기도실로 만들 것입니다.

짧은 설명회와 간략한 자료로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개척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내년 3월 개척교회가 서문교회를 떠나갈 때에는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지만, 출산의 기쁨으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